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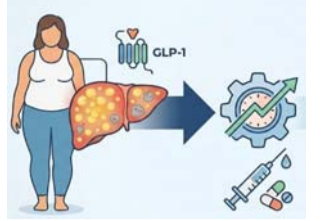


온·오프라인  
식품  
소비 지형 급변  
니



Life

제약바이오  
대사이상 지방간염  
임상 활발  
L2



# 화재피해 막고, 새출발 돕고... 사회 틈새 메우는 '희망 안전망'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를 미션으로, 가장 신뢰받는 '평생희망파트너'를 지향한다. KB손해보험 희망은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는다. 취약계층의 집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보험, 고령층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안심교육, 아이들의 새 학기와 청년의 자립을 돕는 지원으로 이어져 일상 가까운 곳에서 안전망을 넓혀가고 있다.

#### ◆ 보험의 본업과 생활 안전망

KB손해보험의 포용금융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서 출발한다.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화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 건물과 가재도구 피해는 물론 화재배상 책임, 임시 거주비까지 보장 범위에 담았다. 화재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흔드는 위기로 보고,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금융사각지대를 직접 찾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KB손해보험은 전주시 서서학동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안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스마트폰 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와 유의사항 등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에는 '소비자서비스현장'도 선포했다. 소비자 보호 최우선, 피해 사전 예방, 불만의 신속한 처리, 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전사 행동기준으로 제시해 고객중심경영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 아이들의 새 출발과 응원

KB손해보험은 신학기를 맞아 소상공인 자녀와 그룹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200명에게 책가방과 운동화, 학용품 세트 등 학습물품을 지원했다. 눈길을 끄는 건 지원 방식이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모델과 사이즈를 미리 선택하도록 해 획일적 배분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꾸렸다. 물품이 실제 생활 속에서 쓰이고, 아이들이 새 학기 출발선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홀트아동복지회 본사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런런챌린지' 6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 고객 행복 위한 '희망 파트너' 일상 가까운 곳에서 이웃 도와

#### 취약계층에 화재보험 혜택 제공 고령층 찾아가는 금융프로그램 취약 아동들에 학습물품 지원도

#### 자립준비청년 돕는 '런런챌린지' 취·창업, 생활 지원 등 자립 동행

#### 펫보험 연계, 유기동물 구조 지원 동물의 생명까지 보호범위 넓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고민이 담겼다.

그룹홈 아동 50여 명을 위한 실내 클라이밍 체험도 함께 진행했다. 새 학기를 앞둔 아이들에게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도전과 성취의 경험까지 건넸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동백꽃 선물함' 지원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경제적·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권과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위생용품 등 필수 물품을 지원한 이번 사업은, 포용금융이 금융상품을 넘어 돌봄의 틈까지 살피는 일임을 보여줬다.

#### ◆ 자립의 시간을 함께하는 동반자 KB손해보험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런런챌린지'는 희망의 대상을 청년의 미래로 넓힌다.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2021년부터 이어온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 심리·정서 지원, 생활 안정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지금까지 84명이 참여했고, 약 94%가 과정을 수료했다. 올해 6기에는 디자인, IT, 음악, 물류, 농업 등 다양한 진로를 꿈꾸는 20명이 새로 합류했다.

이 프로그램의 의미는 단순한 경제 지원에 그치지 않는 데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자기 이름으로 삶의 방향을 세우고, 실패

를 견딜 기반까지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임직원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KB 프로보노 봉사단'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보험과 금융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금융취약계층의 올바른 금융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이 활동은, KB손해보험의 상생금융이 기부를 넘어 전문성의 공유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사람을 넘어 생명까지 돌보다

KB손해보험의 돌봄은 반려동물 화와 동물 복지에도 확장되고 있다. 'KB 금쪽같은 펫보험'과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에 유기동물 구조·이송을 위한 이동료 차량을 기증했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기존 차량으로는 신속한 현장 대응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구조와 의료 이송에 특화된 새 차량은 위기 상황에 놓인 유기동물의 구조와 치료, 병원 이송, 입양 연계까지 보다 안전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의 삶을 지키는 보험이 동물의 생명까지 보호의 범위를 넓힌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도 남다르다. 펫보험과 연계한 기부 구조를 통해 고객의 보험 가입이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도 눈에 띈다. 보험의 역할을 보장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생명으로 확장한 셈이다.

KB손해보험이 말하는 '평생희망파트너'는 결국 고객과 지역사회, 아이와 청년, 고령층과 반려동물까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다. 화재 안심보험과 금융안심지원, 신학기 지원과 자립 프로그램, 소비자 보호와 동물 복지까지 이어진 KB손해보험의 행보는 희망이 추상적인 말이 아닌 삶 가까이 놓인 안전망임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옥 KB손해보험 대표는 "국민 모두의 평생 희망파트너"라는 미션 아래, 고객과 사회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금융 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개발, 본업과 연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1 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왼쪽) 등 임원 및 부사장들이 '소비자서비스현장' 선포식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2 KB손해보험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학습물품 전달식을 진행하고 김규동 ESG상생금융Unit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에서 이상규 KB손해보험 CPC추진본부장(왼쪽부터)과 최미금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대표, 김영한 서울시 정문도시국장이 이동료 차량 기증식을 진행했다. /KB손해보험

## 메트로 한줄뉴스



▲매길로이, 마스터스 2연패...우즈 이후 24년 만에 역대 4번째 /사진 뉴스스  
▲'3경기 연속 선발' 김혜성, 2타수 무안타...오타니 또 홈런

▲조선 첫 세계박람회 출품 '의장기' 5점...12월 국내 첫 공개  
▲23일 '저작권의 날' 서울야외도서관 개장...외국인 프로그램 확대

▲중견수 복귀한 이정후, 연속 안타 마감...시즌 타율 0.185  
▲쇼트트랙 최민정·심석희, 선발전 1·2위로 대표팀 재승선